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 순환 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hesion :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金 秀 娟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Soo Yun, Kim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金 得 星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Deuk Sung, Kim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V. 결과 및 해석

VI.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hesion, adaptability and marital communication, and especially tested the linear versus curvilinear hypotheses with Circumplex Model. The subjects were 142 couples living in Pusa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mensions of cohesion,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was linear than curvilinear. High cohesion and high adaptability spouses were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than low cohesion and low adaptability.

I. 서 론

체계적 입장에서 가족의 기능을 설명하려는 이론 중 Olson, Sprenkle 및 Russell(1979)의 순환 모델(Circumplex Model)은 가족의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는지를 알아보는 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 모

델은 응집, 적응, 의사소통이라는 세가지 중심 개념으로 가족 체계를 진단한다. 응집은 가족 체계에서 개인의 연결과 분리의 정도를 나타내며 적응은 가족 체계의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나타낸다. 의사소통은 가족 체계를 구성, 유지, 변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역기능적 수준에 있는 응집과 적응을 기능적인 수준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 Olson과 그의 동료들(1979)은 응집이 연결과 분리 수준에 있어 적절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적응은 구조와 융통 수준에 있어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가족을 균형을 이룬 가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균형을 이룬 가족은 응집과 적응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의 가족보다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곡선적 가설을 세웠다.

그런데 응집 및 적응과 여러 가족 기능과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균형을 이룬 가족이 극단의 가족보다 적절하게 가족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곡선적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결과는 일관적이지 못했다. 특히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결과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 곡선적 가설을 지지한 연구(유순덕, 1987 ; 이숙현과 민혜영, 1990 ; Hundleby & Mercer, 1987 ; Olson, 1986, 1989)와 응집과 적응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라는 선형적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김진희, 1989 ; 민하영, 1992 ; Barnes & Olson, 1985)가 있다. 이렇게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한 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응집과 적응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Olson의 모델을 체계적인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곡선적인 해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순환 모델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 대상도 부모-청소년이 대부분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lson의 순환 모델의 특성을 소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즉, 순환 모델의 가설에 따라 이들의 관계가 곡선적이라면 균형을 이룬 가족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극단의 가족이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 관계가 선형적이라면 응집과 적응이 높은 부부일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것이고 응집과 적응이 낮은 부부일수록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이 두 입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부부간의 응집과 적응은 의사소통과 어떠한 관계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응집과 적응

가족의 애정적이고 정서적인 기능이 가족의 주요 기능으로 간주되어짐에 따라 Olson, Russell 및 Sprenkle(1983)은 기존의 여러 개념을 종합하여 응집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하였다. 응집은 ① 정서적 유대 ② 가족 외부 환경과 하위체계들간의 경계 ③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④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과 개인의 사적시간의 허용정도 ⑤ 가족의 공동공간과 개인의 사적공간의 허용정도 ⑥ 친구 ⑦ 의사결정의 유형 ⑧ 취미와 레크레이션의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응집의 수준에 따라 유리, 분리, 연결, 밀착의 네가지 수준으로 구분 되어진다. 그리하여 응집이 적당히 낮게 분리된 가족이나 적당히 높게 연결된 가족은 독립과 연결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가족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개인적 발전도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Galvin & Brommel, 1986 ; Olson et al, 1983)는 것이다.

한편 체계로서의 가족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지향과정(morphostasis)과 변화지향과정(morphogenesis) 모두를 가지고 있다. 즉 안정지향과정과 변화지향과정 사이의 균형을 통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가족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Olson(1983)등은 적응을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단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가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관계의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즉, 적응은 가족 성원들이 가족 체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적응은 ① 가족의 권력 구조 ② 가족 성원들간의 타협하는 능력 ③ 역할 관계 ④ 가족 규칙의 명시성 및 융통성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적응은 변화 능력의 정도에 따라 경직, 구조, 융통, 혼돈의 네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변화와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에서는 상호 주장적인 대화, 지도력의 공유, 성공적인 역할 타협, 역할의 공유 그리고 개방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공유하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응이 매우 낮거나 높은 경직된 가족이나 혼돈된 가족은 역기능적이고, 적응이 적당한 구조적 가족이나 융통적인 가족일 때 가족의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Galvin & Brommel, 1986 ; Olson et al, 1983)고 본다.

2.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 모델에 의하면 응집과 적응은 중심 차원으로 서로 교차하는 두 축으로 표시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응집의 네 수준과 적응의 네 수준은 서로 연결되어 16개의 구성 성분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16개 성분은 크게 3가지 가족 유형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균형을 이룬 가족(balanced family)으로서 응집에서는 연결, 분리에 위치하고 적응에서는 융통, 구조 수준에 있는 가족이다. 두번째 유형은 중간 범위의 가족(mid-ranged family)으로서 응집과 적응 중 한 차원이 극단에 위치하고 한 차원은 중간 수준에 있는 가족이다. 세

번째는 극단의 가족(extremed family)으로서 응집과 적응이 모두 극단의 위치에 있는 가족 유형이다.

한편 의사소통은 역기능적인 수준에 있는 응집과 적응을 기능적인 수준으로 이동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은 가족원이 욕구나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가족의 역할이나 규칙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카니즘이며, 순환 모델에서는 직접 도식되지 않는다(Barnes & Olson, 1985). 의사소통은 크게 효율적 의사소통과 비효율적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란 응집과 적응이 균형적으로 잘 기능하게 하고 계속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라 하였다.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켜 균형을 이루는 영역으로의 이동을 방해한다. 순환 모델에 의하면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은 곡선적인 관계를 가진다. 즉 응집과 적응이 적당한 가족(균형을 이룬 가족)이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며, 응집 및 적응이 매우 높거나 낮은 가족(극단의 가족)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간주한다(Olson et al, 1983).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자녀의 가출, 음주, 마약사용, 도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 가정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경험적 연구들(Hundleby & Mercer, 1987 ; Olson, 1986, 1989)과 부모-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이숙현과 민혜영, 1990 ; 유순덕, 1987)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곡선적이라기 보다는 선형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Olson(1986)은 문제가 있는 가족은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가 곡선적이지만 정상 가족에서는 선형적이라고 하여 연구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정상가족에서는 응집과 적응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Barnes와 Olson(1985)의 부모-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가족의 응집, 적응, 가족 만족 그리고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진희(1989)와 비행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한 민하영(1992)의 연구가 선형적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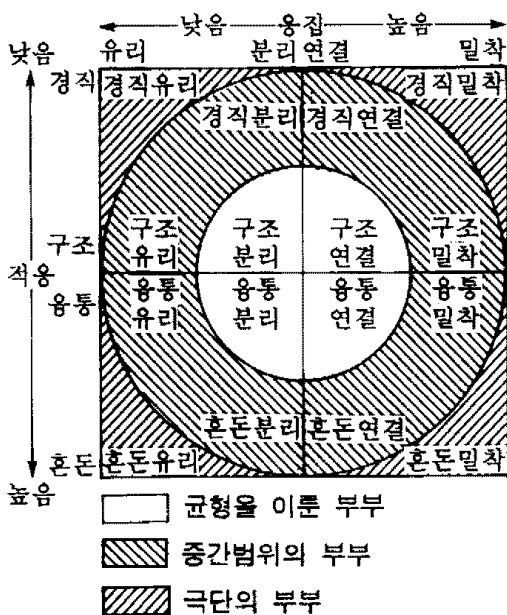


그림 1. 순환 모델(출처 ; Olson et al, 1983, 71P).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가족생활주기의 확대기에 해당하는 일반 부부로 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척도 제작을 위해 예비 조사를 하였다. 본조사는 부산 시내 소재의 초, 중, 고등학교 중 동래구의 중학교, 남구의 고등학교, 금정구의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3개 학교에서 총 4학급을 뽑았다. 그 학급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360명(180쌍)의 부부를 표집하였다. 본조사는 1992년 7월 11일에서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360부(180쌍)를 배부한 다음 332부(166쌍)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2.2%였다. 부부 중 한 명이 누락된 것과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쓰인 것은 284부(142쌍)이었다.

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남편이 42.4세, 아내가 38.1세였다. 교육 수준은 남편의 경우 고졸 이상이 74.5%, 아내는 56.3%를 차지하였고, 직업의 경우 남편은 자영 상인, 서비스업자, 기능직이 33.3%로 가장 많았다.

3. 측정 도구

1) 응집 및 적응

응집과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제작한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 III-이하 FACES III로 표기함) 중 부부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아내용과 남편용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응집은 10개의 홀수 문항이고, 적응은 10개의 짝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응집과 적응의 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전체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과 적응은 높다고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응집이 $\alpha = .$

86, 적응은 $\alpha = .58$ 이다.

2) 의사소통

의사소통 척도는 기존의 척도(김순옥, 1990; 송성자, 1985; 원효종, 1983; Boyd & Rouch, 1977; David, Balswick & Halverson, 1983; Olson, Founier & Durckman, 1992; Straus, 1979)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4

변 인	구 분	남편 N(%)	아내 N(%)
연 령	20-29세		1(0.7)
	30-39세	47(33.3)	104(73.9)
	40-49세	84(59.6)	35(24.6)
	50-59세	10(7.1)	1(0.7)
	이 상		
교육수준	국 졸	9(6.4)	16(11.9)
	중 졸	25(17.7)	42(31.9)
	고 졸	65(48.1)	65(48.1)
	대 졸	31(22.0)	9(6.7)
	대학원졸	6(4.3)	2(1.5)
	남편의 직업	무직	
임시고용, 일일 고용직			3(2.1)
서비스직, 숙련/반숙련공, 단순 노			18(12.8)
자영상인, 자영서비스업자, 기능직			47(33.3)
하위 전문 기술직, 정부의 하급 공무원			37(26.2)
일반회사 사무직			
고위전문 기술직, 정부의 관리직 공무원			26(18.4)
일반회사의 고급관리직			
기타			4(2.8)
결혼년수		1-10년	
	11-20년		244(81.3)
	21-30년 이상		26(9.3)
수 입	50만원 미만		10(3.6)
	50-90만원 미만		94(35.3)
	90-150만원 미만		108(39.4)
	150-200만원 미만		36(13.1)
	200만원 이상		20(9.5)
자 녀 수	1명		16(5.8)
	2명		146(52.5)
	3명		76(27.3)
	4명 이상		40(11.4)

이론적인 근거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적극적이고 명료한 의사소통, 배우자의 수용적인 태도, 긍정적 감정에 대한 자기노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효율적 의사소통은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의사소통, 불안의식과 회피, 비밀관적이고 산만한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0문항이다. 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주어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되게 하였다.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alpha = .92$ 이었다. 점수 범위는 40~120점이다.

4. 자료분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응집 및 적응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일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곡선적 관계

1) 세 부부 유형의 의사소통

균형을 이룬 부부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극단의 부부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Olson의 방법대로 세 부부 유형으로 나누었다. 먼저 부부 유형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응집과 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응집은 평균이 34.4, 표준편차가 7.3(범위: 10~50점)이었으며, 적응은 평균이 29.1, 표준편차가 5.2(범위 10~50점)이었다. Olson과 동료들(1985)의 범례에 따라 응집과 적응의 점수를 평균 ±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응집과 적응의 점수범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을 순환 모델에 따라 구분하면 그림 2와 같다.

세 부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균형을 이룬 부부가 153명(54.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간범위의 부부가 100명(35.3%)이었고 극단의 부부는 30명(10.6%)으로 가장 적었다. 그런데 극단의

부부에 해당하는 4가지 구성성분 중 응집이 매우 높고 적응이 매우 낮은 경우(밀착·경직)와 그 반대인 응집은 매우 낮고 적응이 매우 높은 경우(유리·혼돈)에 해당되는 사례는 없었다. 이 두 구성성분은 이론적으로는 분류 가능하나 실제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의 부부는 응집과 적응이 둘 다 높거나(밀착·혼돈), 낮은(유리·경직) 2개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유형별로 의사소통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고자 일원분산 분석을 하고 추후검증

표 2. 응집과 적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응 집	34.4	7.3
적 응	29.1	5.2

표 3. 응집과 적응의 수준별 점수 범위

응 집	응 집			
	유 리	분 리	연 결	밀 착
범 위	10-27	28-35	36-42	43-50
분 포	18.4%	34.6%	35.0%	12.0%
적 응	적 응			
	경 직	구 조	용 통	혼 돈
범 위	10-24	25-29	30-34	35-50
분 포	15.9%	35.0%	34.7%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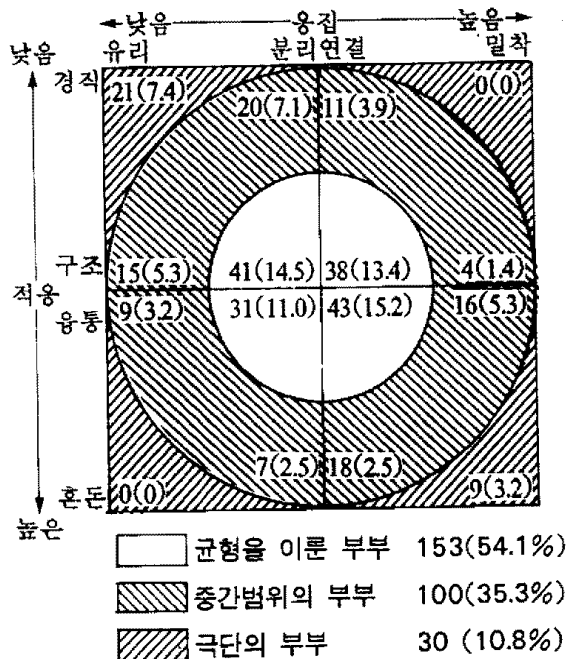


그림 2. 부부 유형에 따른 사례수.

으로 Scheffe검증을 하였다.

의사소통은 균형을 이룬 부부의 의사소통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중간 범위 부부이고 극단의 부부가 가장 낮았다. 이 세 집단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3.52, P<.05$). 추후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균형을 이룬 부부와 중간 범위의 부부, 극단의 부부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균형을 이룬 부부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였고, 중간범위 부부와 극단의 부부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함을 알 수 있다.

2) 16개 구성성분의 의사소통

다음으로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가 곡선적이라면 16개 구성성분은 균형을 이룬 유형에 해당할수록 의사소통은 높을 것이며 극단의 유형에 해당할수록 의사소통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16개 구성성분의 의사소통 평균값을 산출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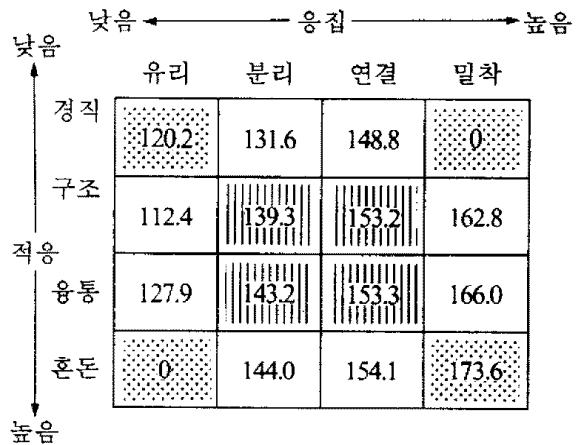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면, 적응에 따른 점수차는 응집에 의한 점수차보다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집 축에서 밀착에 해당되는 영역의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으며, 유리에 해당하는 영역의 의사소통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간 범위 유형의 구조·밀착 부부와 융통·밀착 부부 그리고 극단 영역의 혼돈·밀착 부부의 의사소통이 높았으며 반면에 중간 범위 영역의 구조·유리 부부, 융통·유리 부부와 극단 영역의 경직·유리 부부의 의사소통이 낮았다. 이것으로 보아 균형을 이룬 부부가 중간 범위의 부부나 극단의 부부보다 의사소통이 높은 것이 아니라 모델의 오른쪽으로 갈수록(응집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Olson의 곡선적 가설대로라면 극단의 부부에 속하는 두 가지 구성성분은 균형을 이룬 부부 및 중간범위의 부부보다 낮은 의사소통 점수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혼돈·밀착된 부부는 극단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16개 구성성분 중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Olson의 곡선적 가설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극단의 부부가 가장 낮은 의사소통을 나타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극단의 부부는 혼돈·밀착의 경우가

표 4. 세 부부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부부 유형	N	Mean	Scheffe
균형을 이룬 부부	153	146.66	a
중간범위의 부부	100	140.56	b
극단의 부부	30	136.37	b

$F=3.52$
 $P<.05$



극단의 부부 중간 범위 부부 균형을 이룬 부부

그림 3. 16개 구성성분에 대한 의사소통 평균.

9명(3.2%), 경직·유리된 경우가 21명(7.4%)으로, 경직·유리된 부부가 혼돈·밀착된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균형을 이룬 부부의 4개 구성성분(적절한 응집과 적절한 적응)은 중간 정도의 의사소통 값을 가지나, 4개 구성성분의 평균은 변화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의사소통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16개 구성성분을 분석한 결과 균형을 이룬 부부가 중간범위의 부부와 극단의 부부보다 의사소통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응집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됨을 알 수 있다.

3) 균형 이탈과 의사소통과의 상관

순환 모델에서 균형 이탈(Distance From Center)은 응집과 적응이 균형을 이룬 영역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가를 가리키는 선형적인 값이다. 균형 이탈은 개인의 응집 점수와 전체 응집 평균의 차를

제공한 값과 그리고 개인의 적응 점수와 전체 적응 평균의 차를 제공한 값을 더하여 제공된 것이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Olson et al, 1985).

$$\text{균형 이탈} = \sqrt{\frac{(\text{응집} - \text{전체 응집 평균})^2}{(\text{적응} - \text{전체 적응 평균})^2} + \dots}$$

곡선적 가설이 지지된다면 균형을 이룬 부부일 수록 균형 이탈은 적고 의사소통은 높을 것이다. 또한 모델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균형 이탈이 큰 극단의 부부일수록 의사소통은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균형 이탈과 의사소통간에는 강한 역상관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균형 이탈과 의사소통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균형 이탈과 의사소통의 상관은 유의하지만 매우 약하였다. 그러므로 균형 이탈과 의사소통은 약한

표 5. 균형 이탈과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

	균형 이탈
의사소통	-.19*

*P<.0001

부적 상관을 가져 곡선적 가설을 뚜렷히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균형을 이룬 부부가 극단의 부부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는 곡선적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Olson의 곡선적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세 부부 유형에서 결과가 지지된 것은 실제 곡선적 형태를 띄었다기 보다는 유형 분류 과정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2.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선형적 관계

1) 네 부부 유형의 의사소통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가 선형적이라는 선형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응집과 적응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4개의 부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응집과 적응이 모두 낮은 부부(유형 I)는 33.2%, 응집은 낮고 적응이 높은 부부(유형 II)는 19.8%, 응집은 높고 적응이 낮은 부부(유형 III)는 27.2%, 응집과 적응이 모두 높은 부부(유형 IV)는 19.8%였다.

네 부부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을 일원분산분석하고 추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은 응집과 적응이 모두 높은 집단(유형 IV)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응집이 높고 적응은 낮은 집단(유형 III), 응집이 낮고 적응은 높은 집단(유형 II)의 순이었으며, 응집과 적응이 모두 낮은 집단(유형 I)의 의사소통이 가장 낮았다(F=38.6, P<.0001). 추후검증 결과 유형 I은 유형 II 및 유형 III, 유형 IV와 차이가 있으며, 유형 III과 유형 IV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응집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 됨을 알 수 있으며 적응보다는 응집이 의사소통에 더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상관관계

응집과 적응은 의사소통과 각각 .66과 .39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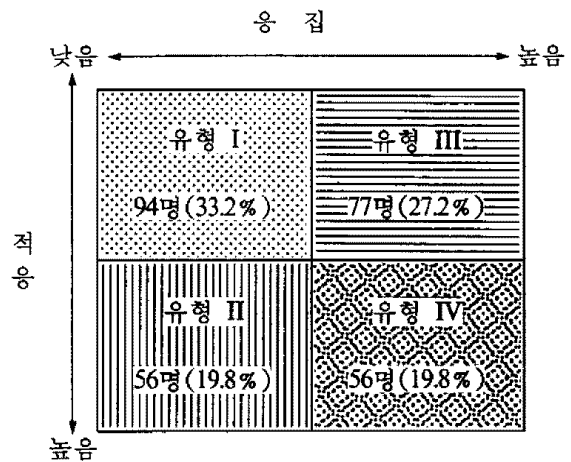


그림 4. 네 부부 유형의 분포.

표 6. 네 부부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부부 유형	N	Mean	Scheffé
유형 I(낮은 응집 낮은 적응)	94	127.32	a
유형 II(낮은 응집 높은 적응)	56	140.25	b
유형 III(높은 응집 낮은 적응)	77	154.36	c
유형 IV(높은 응집 높은 적응)	56	158.56	c

F=38.6
P<.0001

표 7.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상관계수

	응 집	적 응
의사소통	.66*	.39*

*P<.001

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P < .001$). 즉, 응집과 적응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은 효율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진희(1989), 민하영(1992), Barnes와 Olson(198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기서도 적응보다는 응집이 의사소통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는 선형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응집이 의사소통에 더 관여함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순환 모델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가 곡선적이거나 선형적인가를 알기 위해 수행되었다.

순환 모델의 기초가 되는 세 부부 유형에 관한 분석에서 곡선적 가설이 지지된 것처럼 보인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성분을 합쳐버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는 선형적이며, 특히 적응보다는 응집이 의사소통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짐이 밝혀졌다. 즉 부부간에 서로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만든다. 이는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능력보다 의사소통에 더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순환 모델의 곡선적 가설이 기각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순환 모델의 부부 유형 분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Olson은 16개 구성성분에서 4개의 극단 성분을 합쳐서 극단의 부부로 하였다. 이 4개의 구성성분은 매우 다른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이것을 합친다는 것은 이들 각각의 성질을 흐리게 하여 성격을 모호하게 만드는 결함을 안고 있다. 이것은 유순덕(1987)의 결과(경직-유리 가족 25명; 16%, 혼돈-밀착된 가족 3명; 1.9%)에서도 나타나는데, 곡선적 가설이 지지된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의 유형을 합쳐버린 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응집과 적응의 수준을 평균±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다. 정규분포

에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 ±1 표준편차의 범위는 전체의 68.27%가 포함되어지게 된다(신태곤, 1992).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므로 정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극단의 부부는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역기능적인 부부로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세째, 순환 모델과 측정도구간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척도가 순환 모델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척도 자체가 선형성을 가지고 있어 가족 기능간의 관계 역시 선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다. Olson등(1979, 1983)은 응집이 매우 높은 밀착된 가족이란 “그물에 얽혀있는 것”과 같이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요소가 차단되고 가족내에서 충성과 일치가 강조되는 특징이 있으며, 반면 응집이 매우 낮은 유리된 가족은 가족원의 접촉과 일치감이 적으며 가족내의 애착과 참여가 제한된 문제가 있는 가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Olson의 척도에서 응집의 내용은 가족이 “바라고 선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응집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요소가 차단된 밀착된 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신 정서적 유대가 돈독하며 기능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런 응집의 내용은 가족의 단란함과 고유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정서와 부합되어 응집과 의사소통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평균±1 표준편차의 기준은 상대적이고 인위적인 분류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현상을 보인든지, 어떤 점수를 가진든지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극단의 유형과 균형을 이룬 유형과의 올바른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측정상의 문제로 예를 들면 응집의 경우 유리된 가족이나 밀착된 가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즉 유리-분리-연결-밀착은 동일 연속선상이 아니라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되므로 Olson의 응집 척도로는 이 네 차원을 모두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단일차원(unipolar)을 재는 likert식 척도가 아닌 곡선성을 측정할

수 있는 양측 척도(bipolar format)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Olson의 균형을 이론 부부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극단의 부부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곡선적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응집과 적응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선형적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특히 응집이 의사소통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는 선형적이며,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할수록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부부의 의사소통은 효율적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이 가족생활 주기상의 확대기 부부였으므로 신혼기나 진수기, 은퇴기등의 확대기 이외의 부부에 일반화시키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표본의 사례수가 적어서 16개 구성성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순옥(1990).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2) 김진희(1988).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 4) 신태곤(1992). 통계학. 서울:법문사.
- 5)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 박사학위 논문.
- 6) 원효종(1984).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식과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이숙현·민혜영(1992). 가족체계 유형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6), 215-226.
- 9) 한국가족학 연구회(1991).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서울:교문사.
- 10) Barnes & Olson(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7-447.
- 11) Boyd & Rouch.(197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s. *J of Counseling Psychology* 24, 540-542.
- 12) Beavers & Voller.(1983). Family model :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13) Davidson, Balswick. & Halverson.(1983). The relation between spousal affectiveself-disclosure & Marital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381-391.
- 14) Galvin & Brommel.(1986).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 change*, 2nd Edition. Scott : Foresman & Company.
- 15) Hundleby & Mercer.(1987). Family and friends as social environm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young adolescents use of alcohol, tobacco and marijuana. *J.M.F.* 49, 151-164.
- 16) Lee.(1988).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 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Beavers systems models. *Family Process* 27, 73-85.
- 17) Olson.(1986). Circumplex Model VII :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 337-351.
- 18) Olson.(1989).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 VIII :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Olson, Russell and Sprenkle. *Circumplex Model system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Binghamton NY : the Haworth Press.
- 19) Olson, Porter, Lavee.(1985). FACES III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Paul, Minnesota, 1985.
- 20) Olson, Fournier. & Durckman.(1982). ENRICH. unpublished paper,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Minnesota.
- 21) Olson, Russell. & Sprenkle.(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22) Olson, Sprenkle. & Russell.(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1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23) Straus.(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MF*, 75-88.